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인터넷중독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또래·교사관계의 매개효과*

주 애 자¹⁾

황 혜 원²⁾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또래·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북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332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자기분화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인터넷중독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족건강성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또래·교사관계를 통해서는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결과는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자기분화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청소년, 가족건강성, 자기분화, 인터넷중독, 또래·교사관계

* 본 논문은 2018년 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cjuhwh@hanmail.net)

I. 서 론

인터넷은 우리 일상에 수많은 정보와 편리함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 편의성 만큼이나 그에 따른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부작용으로 학업이나 직업 또는 여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점점 더 크게 대두 되고 있다(박승민, 김창대, 천명재, 2005).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약물, 알코올, 또는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중독되는 심리적 장애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의 지속적 사용은 통제력을 잃거나 생활양식이나 기능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내성과 금단 증상을 보여 생활양식이나 기능수행에 통제력을 잃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행동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류진아, 2003).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6년 인터넷 중독 위험현황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7,426명 중 17.8%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했으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연령대별 위험군에서 유아동(만3세-9세) 17.9%, 청소년(만10세-19세) 30.6%, 성인(만20세-59세) 16.1%, 60대 11.7%로 나타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세대에 비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정보화진흥원, 2017).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가족 특성에 있어서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71.3%가 부모님의 이해도나 칭찬, 믿음, 고민의논, 경청정도, 관심 등 가족 관계 친밀도에서 일반 사용자군의

78.7%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님과 대화유형 역시 인터넷중독 위험군의 37.8%가 ‘생각이나 감정 표현에 조심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응답하여 같은 항목에 응답한 일반사용자군 28.6%보다 9.2% 높게 나타나 부모와의 대화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기반의 약화와 더불어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에 대한 미래 불안 등은 청소년들에게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충족되지 못한 개인적인 욕구를 가상공간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충족하고 해소하려는 청소년들은 그러한 행동의 지속성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임은미, 김지은, 박정민, 1999).

청소년기에 보이는 반사회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유형은 인터넷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반항적 특징은 청소년 초기에 급격한 증가치를 보이다가 청소년 후기부터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기도 하고(Hirschi & Gottfredson, 1983), 생애 초기 유년기에 보이는 반사회적인 행동유형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초기 시작자(early starter)’ 양상을 보이거나,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문제로 인해 반사회적이고 반항적인 특성이 진행 발달하다가 성인기에 들어서 멈추는 ‘후기 시작자(late starter)’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Patterson, DeBaryshe, Ramsey, 1989).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은 환경적 특성과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 상호연결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Thornberry & Krohn, 2005),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심리적 도피처로서 인터

넷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는 신체적 제반 특성들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화되어 개인의 사회적 역할수행을 학습하는 인생의 과도기로써 상대방의 감정이나 느낌에 예민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정서적인 과다한 과업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낀다(엄옥연, 2011).

청소년기에 환경과 자기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가 모르는 자기만의 공간인 가상세계로서의 인터넷 공간을 자주 찾게 되고(이주향, 2005), 현실세계에서의 부적절감을 보상받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좌절감을 해소하며 자기정체성 표현 확장을 즐거하게 되고, 심하면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된다(장재홍, 2002; 주석진, 201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서 가족변인을 보면,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의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김경희, 2012; 김현주, 이해경, 2009). 이는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일차적 집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성장발달에 기본이 되며 개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심리사회적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가족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가족건강성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복지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기숙, 2009; 유계숙, 2004).

건강한 가족이란 구성원간에 상호작용이 기능적이면서 가족의 문제에 대한 대처가 효율적이고 가족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전체 가족체계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가족이다(유영주, 2004).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이란, 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환경으로서 가족유대감,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문제해결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를 강조한다(김기리, 이선정, 신호식, 2008; 장성화, 2010). 건강한 가족을 통하여 청소년은 자기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찾아갈 수 있으며, 타인과의 대화능력 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에 대해 자기긍정을 바탕으로 한 수행능력도 증진시킬 수 있다.

반면에 가족의 결속력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은 외부 환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능력이 낮고,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갈등상황에 직면하여 심리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안영자, 2008; 이해경, 2009).

청소년기는 높은 가족유대와 부모와의 돌봄관계를 통해 인생목표와 긍정적 기대의 개발, 의사결정과 적극적 선택, 협동과 소속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이며(Kumper & Alvarado, 1995), 부모의 애정과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기이다(Springer, Wright, McCall, 1997).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청소년은 도피처로 인터넷에 빠지기 쉬워진다(김재엽, 조준범, 정윤경, 2008). 즉 가족건강성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높은 상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형수, 조우홍, 2009; 장성화, 박영진, 2013).

이와 같은 가족건강성과 인터넷중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

을수록(권윤희, 2005; 이정연, 최영선, 2002), 부모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안세라, 2003), 부모가 일방적이라고 느낄수록 청소년들은 인터넷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분화 수준이 높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이성적 원칙에 따라 타인을 인정하며, 타인과의 정서적인 융합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경험하게 되는 애착불안이 낮고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게 된다(이지민, 2009). 반면 자기분화 정도가 약하면, 자기 감정통제에 미흡하고 외부세계 지각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부족하게 되어 타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 환경과 내적갈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기 쉽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족관련성에 대해 Bowen의 가족체계이론 관점으로 보면, Bowen은 가족을 개인주의적 접근보다는 체계적 관점에서 상호 관련된 관계망으로 보았다. 즉 가족은 가족의 역사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의 체계이며, 전체 가족체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하나의 정서단위로 나누어 보았다. 특히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 주요개념인 자기분화는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하며 정서적 성숙과 원 가족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말한다(제석봉, 1989). 이러한 Bowen의 자기분화 이론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로는 김대성(2009)의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관계”, 김은주(2012)의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자기통제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황종남(2015)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보웬의 가족

치료적 접근” 등이 있다.

가족건강성은 자기분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혜정, 조은경, 2007). 가족건강성의 약화로 인해 자기분화가 긍정적이지 못한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는 심리내적 차원과 타인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대인관계 차원에서 균형적인 성장이 미흡해진다(이지민, 2009). 반면에 건강한 가족 회복은 인터넷중독성향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이정주, 2011). 자기분화와 대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은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변영순, 이혜순, 2007), 자기분화 정도가 약하면 진로태도 성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으며, 상대방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히 반응하고, 관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관계에 더욱 집착하는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진다(이명옥, 하정희, 2007; 이현주, 권희경, 신태섭 2013). 그런 청소년은 가족체계를 벗어나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의 공간에서 자기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여겨 인터넷중독으로 빠지기 쉽다.

청소년의 자기분화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이 학교생활적응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변영순, 이혜순, 2007),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변화가 인터넷중독 성향을 감소시키며(강희양, 2008),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이지민, 2010). 또한 청소년의 자기분

화는 SNS 의존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김은혜, 채민경, 최유진, 장경은 2018). 이는 자기분화가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임현희, 조한익, 2018).

이와같이 자기분화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우울성향 정서로 인해, 인터넷 중독, 약물 남용의 문제에 빠지기 쉬워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요인 중 또래관계의 변인과 교사와의 관계성은 인터넷 중독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다(남영옥, 이상준, 2005). 청소년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을 익히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게 된다(이종하, 2011; 구본용, 2012). 즉 학교에서의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부적응이 심화되면 그에 대한 도피처로 인터넷중독에 빠질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가족건강성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또래친구와의 유대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은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또래 및 교사관계등 다른 체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김연주, 2008). 반면에 가족건강성이 낮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높아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혜경, 2009). 이처럼 가족건강성이 약하면 교우

관계 또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 및 상호작용이 떨어지게 되고 인터넷 중독 성향도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가족건강성이 높은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은 높은 자기분화 성취로 이어지고 학교에서도 또래관계, 교사관계에서 높은 적응성을 보여준다(제석봉, 1989). 아울러 인터넷중독의 보호요인으로서, 교사의 관심과 지지는 학교생활 적응력에 밀접한 영향력을 보여준다(송행숙, 2010; 엄옥연, 2011; 이준기, 2011)

지금까지의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와 인터넷중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반면에 청소년의 자기분화와 인터넷중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건강성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와 또래·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자기분화와 또래 및 교사관계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또래·교사관계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2.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충북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350명의 자료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33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332명으로 성별은 남학생이 189명(56.9%), 여학생이 141명(42.5%)으로 남학생이 많았으며, 학년은 중학생이 172명(51.8%), 고등학생이 160명(48.2%)이었다. 성적은 중위권이 89명(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상위권이 71명(21.4%), 중하위권이 70명(21.1%), 중상위권이 69명(20.8%), 하위권이 31명(9.3%)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가 261명(78.6%)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정이 47명(14.2%), 조손가족을 포함한 기타가정이 12명(3.6%), 재혼가정이 4명(1.2%)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위권이 240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위권 40명(12%), 상위권 37명(11.1%)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인터넷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하여 통제력을 잃거나 생활양식이나 기능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내성과 인터넷 사용을 중단했을 때 초조함이나 불안등을 경험하는 금단증상을 보여 사회적으로나 직업적 활동을 포기할 정도로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생활양식이나 기능수행에 통제력을 잃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터넷 중독으로 정의한다(이계원,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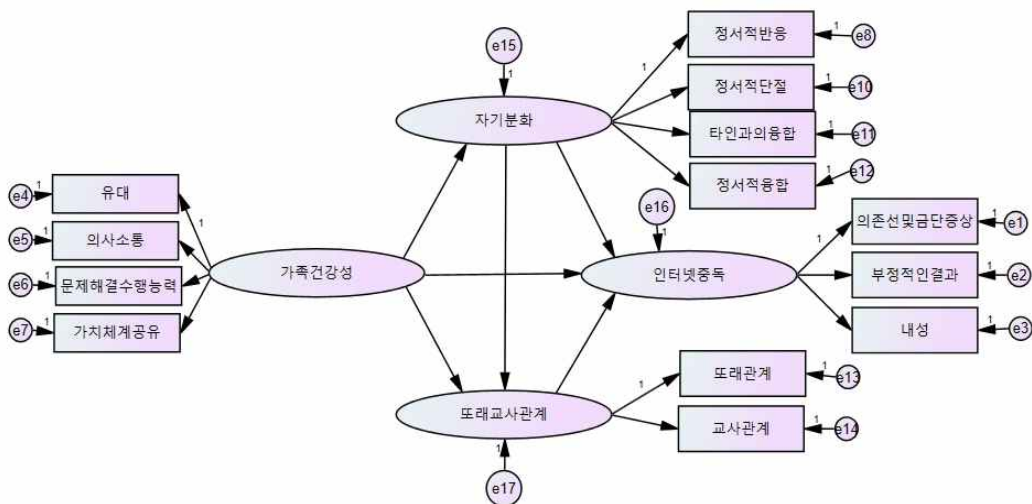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자기분화, 미래·교사관계 및 인터넷중독 간의 연구모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류진아(2003)가 도구로 이용한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 요인은 ‘의존성 및 금단 증상’, ‘부정적인 결과’, ‘내성’의 세 요인이다. 0에서 5점까지 6점 리커트 척도이며, 항목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하게 된다”,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한다”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으로 가족유대감,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로 가족건강성을 정의한다(장성화, 2010).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은주와 유영주(1996)가 제작하고 장성화(2010)가 활용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가족원간의 유대감’,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의 네 요인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 하는 것을 즐긴다”, “우리 가족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긴다” 등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7로 나타났다.

자기분화

심리내적으로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고, 대

인 관계적으로는 친밀감과 자율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자기와 타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개별화와 연합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Bowen의 자기분화로 정의한다(홍성희, 2014).

본 연구에서의 자기분화 척도는 이강훈(2015)이 사용한 한국형 자기분화척도를 사용한다. 하위요인은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융합’의 다섯 요인이다. 6점 리커트 척도이며, “사람들은 내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말한다”, “배우자가 나를 비난하면 한동안 마음이 괴롭다” 등 총 38문항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또래·교사관계

또래집단은 발달과업이 비슷한 단계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말하며(이동미, 김규태, 2015),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에게 있어 심리적인 지지체계이며 정신건강에 중요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송연주, 2014).

본 연구의 또래·교사관계는 유윤희(1995)가 제작하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하여 홍성훈, 김희수(2005)가 수정·보완하고 진은주(2014)가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32문항 중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 등 교우관계 8문항과 교사관계 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해석

먼저 표 1과 같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인터넷중독, 자기분화, 또래, 교사관계의 측정변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각 변인에 해당하는 기술통계값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고,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기분화, 인터넷중독, 자기분화와 또래, 교사관계의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살펴해보았다. 변인들의 평균값을 보면 가족건강

성과 관련된 변인은 5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유대(3.625), 의사소통(3.535), 문제해결 수행능력(3.556), 가치체계공유(3.449)로 나타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가족건강성이 ‘약간 그렇다(3점)’와 ‘대체로 그렇다(4점)’ 중간 정도로서 대체로 자신들의 가족건강성이 양호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변인은 6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의존성 및 금단증상(1.7323), 부정적인 결과(1.3275), 내성(1.2912)으로 나타나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거의 그렇지 않다(2점)’의 중간정도로서 대체로 자신의 인터넷 중독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의존성 및 금단 증상 (y1)	부정 적인 결과 (y2)	내성 (y3)	유대 (h1)	의사 소통 (h2)	문제 해결 수행 능력 (h3)	가치 체계 공유 (h4)	정서적 반응 (ma1)	정서적 단절 (ma2)	타인 과의 융합 (ma3)	정서적 융합 (ma4)	또래 관계 (mb1)	교사 관계 (mb2)
y2	.793**	1											
y3	.767**	.888**	1										
h1	-.235**	-.309**	-.299**	1									
h2	-.266**	-.325**	-.318**	.934**	1								
h3	-.210**	-.243**	-.242**	.893**	.903**	1							
h4	-.242**	-.283**	-.282**	.900**	.905**	.889**	1						
ma1	-.402**	-.437**	-.383**	.143**	.184**	.160**	.129*	1					
ma2	-.325**	-.393**	-.343**	.284**	.294**	.248**	.223**	.624**	1				
ma3	-.375**	-.429**	-.401**	.073	.105	.065	.067	.761**	.559**	1			
ma4	-.333**	-.384**	-.332**	.086	.115*	.057	.066	.798**	.579**	.774**	1		
mb1	-.112*	-.216**	-.195**	.506**	.496**	.465**	.468**	.047	.143**	.010	.025	1	
mb2	-.024	-.094	-.106	.397**	.358**	.361**	.366**	-.097	.010	-.139*	-.101	.532**	1
평균	1.7323	1.3275	1.2912	3.625	3.535	3.556	3.449	3.103	3.277	3.067	2.952	3.075	2.969
표준편차	1.0618	1.0370	1.0702	.8410	.8658	.8661	.8659	.8007	1.0110	.7842	.8540	.4711	.5927
왜도	.184	.565	.484	-.318	-.286	-.294	-.124	1.148	-.170	.198	.050	-.390	-.661
첨도	-.380	-.159	-.595	-.110	-.164	-.051	-.250	0.210	-.435	0.374	-.056	2.499	1.195

* $p < .05$. ** $p < .01$. *** $p < .001$.

성에 대하여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분화와 관련된 변인은 5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정서적반응(3.103), 정서적단절(3.277), 타인과의융합(3.067), 정서적융합(2.952)으로 나타나 자신의 자기분화 정도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3점)’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측정변인들 왜도 값은 3미만($SSI < 3.0$)이고, 첨도 값은 10미만($SKI < 10.0$)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수백, 2009). 이에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최대우도 측정법(ML; maximum likelihood method) 통해서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Pearson의 상관분석에 기초하여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인터넷중독은 가족건강성($r=-.28, p<.001$), 자기분화($r=.41, p<.001$)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며, 또래,교사관계는 가족건강성($r=.26, p<.001$), 자기분화($r=.27,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요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이 잠재 변인의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으며,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기분화가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교사관계의 매개효과 검증에 위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chi^2=107.37, df=59, GFI=.951, RMR=.039, GFI=.988, TLI=.984, RMSEA=.05$ 로 나타나 연구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본 연구 측정모델에 있어서 각각

표 2.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1. 인터넷중독	1			
2. 가족건강성	-.28***	1		
3. 자기분화	.41***	-.03	1	
4. 또래, 교사 관계	.01	.26***	.27***	1
평균	2.43	3.45	2.92	2.59
표준편차	.961	.757	.604	.387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구조 모형의 적합도

모형 적합도	χ^2	df	GFI	RMR	CFI	TLI	RMSEA
측정 모형	107.37	59	.951	.039	.988	.984	.05

주. RMSEA =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Lewis Index, NFI = normal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하위요인 및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보면, 각 잠재변인간 상호 상관계수 값이 낮게 나타나서 잠재변인간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잠재변인과 측정변인간 요인부하 값은 대부분 매우 높게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조모델 분석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자아분화와 또래·교사관계에 따른 인터넷 중독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과 AMOS 21을 사용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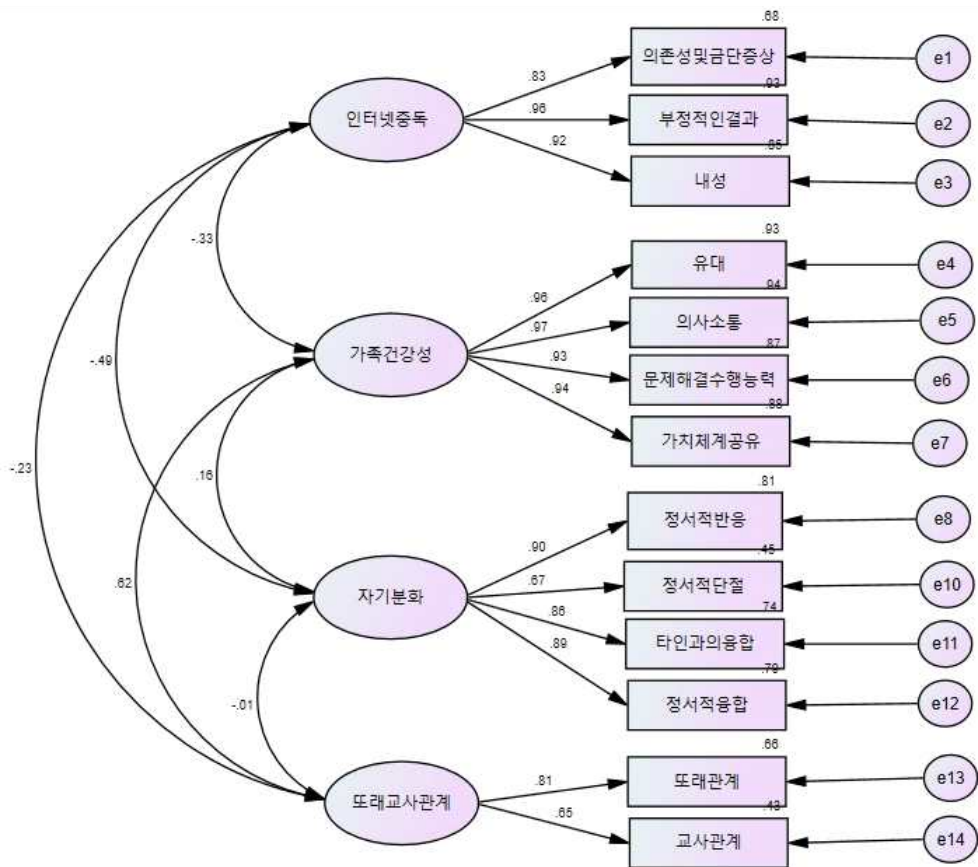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델 분석

다.구조모형의 모수추정 결과, 가족건강성은 자기분화($\beta=.16$, $p<.05$)와 또래·교사관계($\beta=.64$, $p<.001$)에 정적영향을, 인터넷중독($\beta=-.18$, $p<.05$)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자기분화는 인터넷중독($\beta=-.46$, $p<.001$)에 부적영향을 미쳤으며, 또래·교사관계는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모델은 그림 3과 같다.

구조모델에서 경로분석에 대한 측정치는 표 4와 같다. 모델경로에서 C.R 값에 의한 유의확률 P값을 보면 가족건강성이 자기분화에 대한

모델설명력은 13.8% 이었고 P 값이 0.007로 나타나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자기분화가 또래교사관계에 대한 모델설명력은 -5.6% 이었고 P 값이 -0.068로 나타나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건강성이 또래교사관계에 대한 모델설명력은 30.1% 이었고 P 값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가족건강성이 인터넷중독에 대한 모델설명력은 -19.4% 이었고 P 값이 -0.013로 나타나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자기분화가 인터넷중독에 대한 모델설명력은 -55.3% 이었고 P 값이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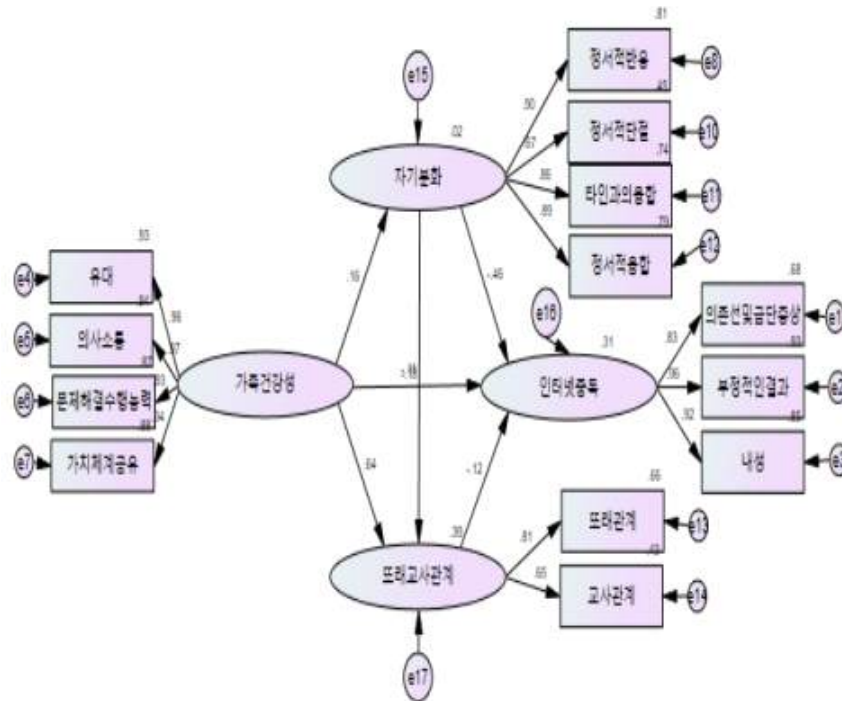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델

표 4. 경로분석

		Estimate	S.E.	C.R.	P	Beta		
						직접	간접	총효과
자기분화	<— 가족 건강성	0.138	0.051	2.681	0.007	0.155		0.155
또래, 교사관계	<— 자기분화	-0.056	0.031	-1.822	0.068	-0.106		-0.106
또래, 교사관계	<— 가족 건강성	0.301	0.029	10.461	***	0.636	-0.016	0.62
인터넷 중독	<— 가족 건강성	-0.194	0.078	-2.493	0.013	-0.179	-0.147*	-0.326
인터넷 중독	<— 자기분화	-0.563	0.068	-8.28	***	-0.462	0.013	-0.449
인터넷 중독	<— 또래, 교사관계	-0.277	0.184	-1.501	0.133	-0.121		-0.121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매개효과 분석

독립	매개	종속	z	p	매개효과
가족 건강성	자기 분화	인터넷중독	-2.572	0.010*	O (부분)
가족 건강성	또래, 교사 관계	인터넷중독	-1.49	0.136	X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이중매개 효과 분석

독립	매개 1	매개 2	종속	B	p	매개효과
가족 건강성	자기분화	또래, 교사 관계	인터넷 중독	0.002**	0.101	X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래교사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대한 모델설명력은 -27.7% 이었고 P 값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가족건강성과 인터넷중독 사이에서 자기분화가 부분 매개효과(Sobel-Z Score = -2.572, $p < .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하여서는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또래,교사 관계를 통해서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모델의 이중매개효과에 대해서는 표 6에서와 같이 가족건강성이 자기분화와 또래, 교사관계를 거쳐 인터넷중독으로 가는 이중매개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분화가 또래교사관계에 대한 설명력이 -0.056으로 $P < .05$ 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겨진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기분화, 또래·교사관계, 인터넷중독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족건강성과 인터넷중독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또래·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사회적 과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자기분화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인터넷중독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또래·교사관계와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또래·교사관계가 낮으며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론적배경에서 제시한 가족건강성이 자기분화와 인터넷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기분화가 학교에서의 또래관계, 교사관계 그리고 인터넷중독 성향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론적배경과 일치한다. 청소년기는 심리발달단계에 있어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다. 건강한 자기분화는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갖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분화는 대인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생활에서 또래 학생들 또는 선생님과 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가족건강성의 영향에 있어서는 자기분화와 또래·교사관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인터넷중독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래·교사관계의 영향에 있어서는 인터넷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기분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또래·교사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인터넷중독에는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Kumper & Alvarado (1995), Springer et al(1997) 등이 제시하고, 유영주(2004), 장성화(2010), 이해경(2009) 등이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건강한 가족이 청소년의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심리적 독립심과 긍정적 자기효능감이 커지므로 인터넷중독 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족건강성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인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또래·교사관계를 매개로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

터넷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과 또래·교사관계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교사관계가 인터넷중독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후 또래 및 교사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건강성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이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최연우(2010)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건강하지 못한 가족내에서 청소년이 가족으로부터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는 심리내적 차원과 타인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대인관계 차원으로 구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가족 외에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의 공간에서 자기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한 이지민(2009) 등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Bowen의 가족체계이론 관점으로 볼 때, 청소년은 가족과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하나의 체계안에서 심리적 유대감과 상호 연결을 통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자기분화와 자기성장을 이루어간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찾기 전에 가족체계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및 변별자료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분화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자기분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가족건강성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원간의 유대감과 의사소통을 높이고,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의 향상과 가족구성원들 간의 가치체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예방적 측면에서 부모교육 및 부모 자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가족건강성 향상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특정 지방의 한 학교(중학교1개, 고등학교 1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한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따른 초, 중, 고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차이를 비교하고 그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연구의 확장을 위한 제언으로써, 본 연구는 중, 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더 나아가 인터넷중독 위험 대상을 중심으로 가족건강성과 자기분화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결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희양 (2008).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자기 조절모형 탐색 및 자존감 향상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구분용 (2012).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관계에서 부모, 교사, 또래 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347-373.

권윤희 (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예측모형 구축.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희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관련변인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기리, 이선정, 신호식 (2008).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4), 187-203.

김기숙 (2009).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요인 예측모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대성 (2009).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촉진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주 (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주 (2012).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자기 통제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혜, 채민경, 최유진, 장경은 (201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분화도와 SNS 의존도와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자료집, 3, 109-109.

김재엽, 조춘범, 정윤경 (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0(2), 29-51.

김현주, 이혜경 (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 척도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20(3), 33-59.
- 김형수, 조우홍 (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23, 61-90.
- 남영옥, 이상준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정신건강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195-222.
- 류진아 (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승민, 김창대, 천명재 (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3 (2), 3-14.
- 변영순, 이혜순 (2007).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8(3), 460-468.
- 송연주 (2014). 초등학생의 ADHD 성향 유형들과 ADHD 성향, 환경적 변인들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4), 189-217.
- 송행숙 (2010). 청소년의 충동성과 인터넷게임 중독 관계 -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11), 225-255.
- 안세라 (2003).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인천지역 중학생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자 (2008).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분화가 역기능행동 및 대인 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엄옥연 (2011).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 우울과 자기통제력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 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유윤희 (1995).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훈 (2015). 장애자녀 부모가 인지한 가 건강성과 영향요인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미, 김규태 (2015).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와 교사관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및 학년의 조절효과. 교사교육연구, 54(2), 315-332.
- 이명옥, 하정희 (2007). 자아분화와 결혼적의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19-535.
- 이정연, 최영선 (200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한국

- 생활과학회지, 11(4), 335-346.
- 이정주 (2011). 중학생들의 가족스포츠 여가활동 참가에 따른 갈등해결전략과 인터넷게임 중독성향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전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중하 (2011). 여중생들의 인터넷 중독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2), 55-78.
- 이준기 (2011). 인터넷중독의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민 (200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계 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021- 1033.
- 이지민 (2010). 가족상담: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간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1(3), 1271-1287.
- 이주향 (2005). 환경변인과 중재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향, 김광웅 (2005). 인터넷 사용량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변인 탐색. 청소년상담연구, 13(2), 15-32.
- 이현주, 권희경, 신태섭 (2013). 또래관계와 자아개념 변화, 미래목표인식, 진로성숙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 성차. 교육심리연구, 27(1), 99-123.
- 이혜경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은미, 김지은, 박정민 (1999). 청소년 사이버 상담의 발전모형.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122.
- 임현희, 조한익 (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5(2), 115-143.
- 장성화 (2010). 대안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학교 적응의 인과적 구조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성화, 박영진 (2013).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463-472.
- 장재홍 (2002).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상담과지도, 37, 31-36.
-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5(1), 19-46.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석진 (201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결정짓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은주 (2014). 저소득 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우 (2010).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이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중남 (2015).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보웬의 가족치료적 접근.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훈, 김희수 (2005).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 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학생의 애착안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6(1), 33-55.
- 홍성희 (2014).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부/모 친밀도 차이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4), 269-290.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 조사결과.
- Kerr, M.,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역). 서울: 학지사.
- An JS, Cooney TM. (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 to late life: The role of generativity develop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span. *Int J Behav Dev* 30(5), 410-421.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wen, M. (1978).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Inc.
- Browning, Don S. (1987). *Religious Thought and the Modern Psychologies Philadelphia*: Fortrass Press, 219.
- Ericson, Eric.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Vol 1,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Ericson, Eric.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92.
- Garnezy., & M. Rutter.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43-84.
- Hirschi, T., & Gottfredson, M. R. (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3), 552-584.
- Kumper, K. L., & Alvarado, R. (1995). Strengthening Families to Prevent Drug Use in Multi-ethnic Youth. In: Botvin, G.: Schinke, S.: and Orlandi, M., eds. *Drug Abuse Prevention With Multi-Ethnic Youth*. Newbury Park, CA:Sage Publications.
- Jonson, J G., Bromley, E., & Mcgeoch, P G. (2005). Role of childhood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maladaptive and adaptive personality traits In J. M. Oidham, J M., A. E. Skodol., & D. S. Bender(Eds.), *The American Psychiatric Press Textbook of personality Disorders*.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Markey, C. N., A. J. Ericksen, P. M. Markey., & B. F. Tinsley. (2001), "Personality and family determinants of preadolescents' participation in health compromising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 83-90.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s and Families*. New York: McGrawHill.
- Otto, F. (2011).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ors, personal resources of mother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ir children", *PPMP*, 61(9): 405-411.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Springer, J. F., Wright, L. S., & McCall, G. G. (1997). Family interventions and adolescent resiliency: The southwest Texas state high-risk youth program.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3), 435-452.
- Thornberry, T. P., & Krohn, M. D. (2005). Applying interactional theory to the explanation of continuity and change in antisocial behavior. In D. P. Farrington(Ed.), *Integrated developmental & life-course theories of offending.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14 (pp.183-209).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3 Pt 1), 899-902.
- 1 차원고접수 : 2019. 01. 23.
수정원고접수 : 2019. 02. 27.
최종게재결정 : 2019. 03. 19.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Peer/Teacher Relation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 Family Healthiness and Internet Addiction

Ju, Ae-Ja

Hwang, Hye-W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peer/teacher relation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healthiness and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3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were analyzed through SPSS and AMO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amily healthin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and was negatively related to his or her internet addiction.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family healthiness and internet addiction. This study empirically found family healthiness would affect the degree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intervene with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for the prevention of internet addiction problem.

Keywords: adolescents, family healthiness, self-differentiation, internet addiction, peer/teacher relationship